

##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어린이집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서소정\*\*      하지영\*\*\*

### Effects of Variables on Mothers' Choices of Types of Infant Care

Seo, So Jung      Ha, Ji Young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어린이집 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의 대기신청을 통해 최근 6개월 이내 입소한 0~40개월의 영아를 둔 어머니 185명과 현재 대기신청 중이며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어머니 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어머니들은 어린이집 대기신청 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된 이유는 보육환경 및 시설의 질적인 우수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어머니는 주변에 자녀를 보낼 만한 어린이집이 충분하지 않으며 질적 수준도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에 비해 지적 성취와 성숙주의를 강조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취업모인 경우, 대기신청기간이 길수록, 어린이집의 구조적 요인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어떠한 변인들이 우선순위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보육 욕구를 이해하고,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영아 어린이집 선택, 어린이집 선택 결정요인, 어머니의 양육신념

\* 본 논문은 2013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논문을 확장한 것임.

\*\* 제1저자 :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jiyoha@wsu.ac.kr

## I. 서론

최근 어린이집의 기능은 보육대상인 영유아를 보호하는 보충적 서비스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양질의 보육환경을 갖추기 위하여 사회문화적 환경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는 실천적인 면에서 보육의 수혜자인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김희경, 2003). 특히 가족 중에서도 어머니는 어린이집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결정자는 어머니인 경우가 54.2%, 부모가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32.3%로 나타나 어머니가 어린이집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임을 알 수 있다(임유경, 2008). 따라서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집의 확충방안을 제안한다면 보육 수혜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여겨진다.

어머니의 어린이집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머니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즉 자녀와 어머니,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어린이집 선택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 신념 등의 변인이 어린이집 선택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Riley & Glass, 2002). 우선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자녀의 연령이나 형제 수,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상태, 가정의 수입 등의 변인이 어린이집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영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임유경, 2008). 실제로 2013년 보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만0세 영아의 69.7%, 만1세 영아의 46.2%, 만2세 영아의 26.4%가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어린이집의 영아보육 분담율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3). 또한 어머니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모의 경우 가정어린이집을, 비취업모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유경, 2008). 즉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또한 어머니가 취업모인 경우 자녀에게 어린이집을 통해 학습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집과의 거리나 비용, 융통적인 일과 등이 더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Kim & Fram, 2009).

한편 부모가 자녀양육과 보육에 대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가 어린이집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인지발달을 강조할수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녀양육에서 부모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믿는 부모일수록, 발달과 학습에 관한 관점에서 놀이를 중시하는 부모일수록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신념에 따라 어린이집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임유경, 2008). 이와 유사하게 지성애(2007)의 연구에서도 자녀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가 법인 등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놀이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과 보육에 대한 신념은 어린이집 선택에 있어 보육대상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에는 놀이와 사회성 발달을 중시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반면에, 3세 이상인 경우에는 인지 발달 및 학습을 중시하여 대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eo, 2003, 2006).

또한 어머니가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특성도 어린이집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때 주로 어린이집의 질적인 요소들로 평가하게 되는데, 어린이집의 질적 요소는 크게 과정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과정적 요소는 교사의 상호작용이나 반응성, 보육활동 및 자료 등이 포함되며, 구조적 요인에는 집단 크기,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의 학력과 경력, 자격기준, 보육료와 같은 요인들이 포함된다(최보가, 문영경, 2004; Phillips, Mekos, Scarr, McCartney, & Abbott-Shim, 2000).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이와 같은 어린이집의 과정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 중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 어린이집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 1세 미만 영아의 부모는 탄력적인 보육운영시간과 교사자질이 각각 21.2%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원장의 운영철학 15.2%, 집과의 거리, 시설 분위기가 각각 9.1% 순으로 나타났으며, 만2세 부모의 경우에는 집과의 거리가 16.1%로 가장 높고, 다음이 시설 분위기 11.5%, 교사자질 10.3%의 순으로 1세 미만 영아의 경우와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어린이집 선택 시 구조적 요인과 과정적 요인 모두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문희, 임유경, 박애리, 2002). 다른 연구들에서도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보육환경, 집과 어린이집 간의 거리, 우수한 보육프로그램, 시설상과 교사의 자질 및 신뢰감(김재환, 2002; 임유경, 2008), 안전, 교사의 긍정적인 자세(권경미, 2012), 교사의 지도능력, 간식 및 급식, 교육내용과 방법, 교사 대 아동의 비율, 원장의 교육철학 및 신념(손옥진, 2004) 등에 따라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의 특성이나 질 중에서도 어떠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자녀가 다닐 어린이집의 유형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통원방법, 시간, 거리와 같은 요인을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한편,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자격이나 부모 참여 프로그램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희, 박응임, 2006). 또한 민간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은 기본생활이나 또래와의 협동과 같은 보육과정의 내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의 민감한 반응과 개별적인 반응, 발달에 맞는 언어 사용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지성애, 2007).

어린이집의 설립유형별로 전문가의 질적 평가나 부모의 만족도를 비교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부모들이 어린이집의 유형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린이집의 특성과 관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린이집의 유형별로 영아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평가한 이순형과 이옥경(2000)의 연구를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가정어린이집보다 영양과 건강, 안전 등의 측면에서 보다 질이 높고, 학습경험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영아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영아에게 개별화된 보호와 양육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발달을 평가하며, 부모,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현상과도 관련되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만족도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시설의 규모나 교사의 자격 및 학력, 교사의 지도능력, 교육과정 운영, 간식과 급식의 질 등에서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희, 박응임, 2006; 손옥진, 2004). 한편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기관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 놀이환경이나 놀이활

동이 질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보가, 문영경, 2004).

지금까지의 어린이집 선택 과정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선택하게 되는 변인이나 어린이집 중에서도 특정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 변인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 그러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이 자녀를 보낼 어린이집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가 이용 부모에 비해 영아기 자녀가 다닐 어린이집을 결정할 때 보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안전 및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갑순, 김남연, 이은형, 2012). 특히 영아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안심인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서문희, 임유경, 김명순, 윤선영, 이옥, 정미라, 최영신, 황혜정, 2002). 이정원 과 이윤진(2008)의 연구에서도,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이유는 아직 어리기 때문이거나 비용이 부담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과 비용 부담의 이유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관련 희망하는 개선사항이나 요구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일시보육서비스, 아동양육비용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들의 수요에 적합한 보육서비스와 가정내 육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이정원, 이윤진, 2008).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과정은 그들이 처한 사회적 맥락 내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관련되어 역동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대기신청을 통해 최근 6개월 이내 입소한 40개월 미만의 영아 및 현재 대기신청 중인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어린이집의 확충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린이집 대기현황과 어머니의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양육신념 및 어린이집 선택 시 결정요인은 어린이집 이용유무 및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영아, 어머니 및 어린이집 관련 변인은 어린이집 유형 선택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G구에 거주하는 0~40개월 영아를 둔 어머니 23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최근 6개월 동안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 대기신청

을 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 185명과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또는 향후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위해 대기신청을 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어머니 53명이 포함되었으며, 연구 대상 영아와 어머니, 가정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영아의 성별은 남아가 110명(59.5%), 여아가 75명(40.5%)이었으며, 영아의 월령 분포는 0~12개월 41명(17.3%), 13~24개월 57명(23.9%), 25~40개월 140명(58.8%)이었다.

조사대상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5.45세(SD=4.94)였으며, 최종학력은 전문대학 졸업 이하 46명(19.3%), 4년제 대학교 졸업 132명(55.5%), 대학원 이상 59명(24.8%)로 나타났다.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취업모가 160명(67.2%), 비취업모가 58명(24.4%)이었으며, 취업모의 근무유형은 시간제 근무가 51명(31.9%), 풀타임 근무가 107명(66.9%)이었다. 가정의 월수입은 300만원 미만 26명(10.9%), 300~500만원 90명(37.8%), 500~800만원 84명(35.3%), 800만원 이상 36명(15.1%)이었다. 가정에 대리양육자가 있는 경우가 115명(48.3%), 대리양육자가 없는 경우가 122명(51.3%)이었다.

<표 1> 연구대상 영아, 어머니 및 가정의 인구사회적 특성

특성	구분	어린이집 이용 (N=185)		어린이집 미이용 (N=53)		전체 (N=238)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빈도 (명)	백분율 (%)
성별	남	110	59.5	40	75.5	150	63.0
	여	75	40.5	13	24.5	88	37.0
영아 연령	0~12개월	13	7.0	28	52.8	41	17.3
	13~24개월	34	18.4	23	43.4	57	23.9
	25~40개월	138	74.6	2	3.8	140	58.8
연령	30세 이하	8	4.3	2	3.8	10	4.2
	31~35세	85	45.9	37	69.8	122	51.3
	36~40세	60	32.4	12	22.6	72	30.3
	41세 이상	16	8.6	-	-	16	6.7
	무응답	16	8.6	2	3.8	18	7.6
어머니 최종학력	전문대학 졸업 이하	39	21.1	7	13.2	46	19.3
	4년제 대학교 졸업	98	53.0	34	64.2	132	55.5
	대학원 이상	47	25.4	12	22.6	59	24.8
	무응답	1	.5	-	-	1	.4
취업유무	취업모	133	71.9	27	50.9	160	67.2
	비취업모	34	18.4	24	45.3	58	24.4
	무응답	18	9.7	2	3.8	20	8.4
근무유형	시간제 근무	40	30.1	10	37.0	51	31.9
	풀타임 근무	92	69.2	15	55.6	107	66.9
	무응답	1	.8	2	7.4	2	1.3

가정	월수입	300만원 미만	19	10.3	7	13.2	26	10.9
		300~500만원	68	36.8	22	41.5	90	37.8
		500~800만원	63	34.1	21	39.6	84	35.3
		800만원 이상	33	17.8	3	5.7	36	15.1
		무응답	2	1.1	-	-	2	.8
대리양육자 유무	예	94	50.8	21	39.6	115	48.3	
	아니오	90	48.6	32	60.4	122	51.3	
	무응답	1	.5	-	-	1	.4	

## 2. 측정도구

어머니의 어린이집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양육신념, 어린이집 선택 시 결정 요인, 어린이집 대기신청 수와 대기기간,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등을 측정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안지영(2001)의 어머니 양육신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는 각 문항의 양쪽에 상반되는 두 가지의 내용을 제시하여 어머니의 의견에 가까운 내용을 선택하고, 그 가까운 정도를 7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양육신념 척도는 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며, 첫 번째 요인인 인성/지적성취 강조는 점수가 낮을수록 인성을 강조하는 신념을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신념을 나타낸다. 인성을 강조하는 입장의 문항에는 “아이의 성격이 좋은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못해도,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면 충분하다” 등이 포함된다. 지적성취를 강조하는 입장의 문항으로는 “친구가 많은 것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사회이므로 다른 사람보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두 번째 요인인 성숙주의/환경주의는 점수가 낮을수록 성숙의 영향력을 강조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신념을 나타낸다. 성숙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은 “어려서 까다로운 성격은 커서는 괜찮아질 것이다”, “아이의 성격은 타고난 성품에 더 좌우된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한편, 환경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은 “자녀의 까다로운 면은 어릴 때 부모가 바로잡아 주어야 나중에 괜찮아진다”, “아이의 성격은 부모의 양육에 따라 달라진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본 조사에서 양육신념 척도의 하위요인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인성/지적성취 강조 신념 .80, 성숙주의/환경주의 신념 .77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선택 시 결정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선택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중요한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11개 요인에 대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의 5점까지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요인들은 구조적 요인과 질적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구조적 요인에는 집과 어린이집의 거리, 어린이집의 설립형태, 보육시간, 보육비용의 4문항이 포함되며, 질적 요인에는 보육환경 및 시설의 질적인 우수성, 보육내용 및 프로그램, 교재와 교구의 질과 양, 시설장의 자질, 교사의 자질,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간식 및 급식의 7문항이 포함된다. 어린이집 선택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중요한 정도에 대한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구조적 요인 .51, 질적 요인 .77이었다.

이밖에 어린이집 대기신청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과거 또는 현재 어린이집 대기신청 현황(대기신청 유무, 대기신청 어린이집 유형 및 수, 기간)을 조사하였다. 또한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으로 ‘주변에 어린이집이 충분한가’,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충분한가’, ‘주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높은가’와 같은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주요 변인의 하위요인과 문항 수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변인의 하위요인과 문항 수 및 신뢰도

변인	하위요인	문항 수	신뢰도
양육신념	인성/지적성취 강조	12	.80
	성숙주의/환경주의	9	.77
어린이집 선택 시 결정요인	구조적 요인	4	.51
	질적 요인	7	.77
주변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주변에 어린이집이 충분한가	1	-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충분한가	1	-
	주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높은가	1	-

###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어린이집 이용 영아용 설문지’는 서울시 G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협조를 요청하여 구립 어린이집 9개소,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8개소에 배부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용 설문지’는 G구에 소재한 육아지원센터 3개소, 산후조리원 2개원, 그리고 문화센터 1개소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어머니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총 309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42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하고, 총 238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이용 영아용 설문지’ 185부,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용 설문지’ 53부가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적 변인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어린이집 대기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 선택 시 결정요인, 양육신념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어린이집 이용유무 및 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영아와 어머니 및 어린이집 변인이 어린이집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도는  $p < .10$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이용유무 및 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대기현황과 어머니의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양육신념 및 어린이집 선택 시 결정요인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어린이집 유형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어린이집 이용유무 및 유형에 따른 대기현황과 어머니의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 선택 시 결정요인 및 양육신념의 차이

조사대상 영아의 어린이집 대기현황은 <표 3>과 같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185명 가운데 과거 어린이집에 대기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153명(78.9%)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신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2.05개( $SD=1.38$ ) 시설에 7.02개월( $SD=6.49$ ) 대기신청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에 대기신청했던 경우는 34명(17.5%)이며, 평균 1.29개( $SD=.68$ ) 시설에 10.60개월( $SD=7.86$ ) 대기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어린이집에 대기신청했던 경우는 7명(4.6%)이었으며, 평균 1.71개( $SD=1.50$ ) 시설에 2.33개월( $SD=.58$ ) 대기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지 않은 영아의 경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신청한 영아는 전체 53명 중 43명이었으며, 평균 3.07개( $SD=2.03$ ) 시설에 신청하였고, 대기기간은 평균 7.02개월( $SD=6.49$ )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에 대기신청한 영아는 11명, 평균 대기신청 시설수는 2.18개( $SD=1.25$ ), 평균 대기기간은 10.60개월( $SD=7.86$ )로 나타났다.

<표 3> 어린이집 이용유무에 따른 대기신청 현황(중복응답)

대기신청한 어린이집 유형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과거 대기신청 현황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현재 대기신청 현황				
	N(%)	대기신청 시설수(개)		대기기간(개월)		N(%)	대기신청 시설수(개)		대기기간(개월)	
		M	SD	M	SD		M	SD	M	SD
국공립어린이집	153(78.9)	2.05	1.38	13.34	6.52	43(75.4)	3.07	2.03	7.02	6.49
민간어린이집	34(17.5)	1.29	.68	11.28	10.34	11(19.3)	2.18	1.25	10.60	7.86
가정어린이집	7(4.6)	1.71	1.50	2.33	.58	3(5.3)	3.00	1.00	-	-

어린이집 이용 영아와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의 어머니 모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신청했던 적이 있거나 현재 대기신청 중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신청한 이유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chi^2$  검증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chi^2=3.029, ns$ ), 보육환경 및 시설의 질적인 우수성이 전체 40.5%로 가장 중요한 이유였으며, 다음으로는 집과 어린이집의 거리가 32.9%로 나타났다.



〈표 4〉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신청 이유(1순위)

구분	전체(N=158)		어린이집 이용(N=115)		어린이집 미이용(N=43)		$\chi^2$
	N	%	N	%	N	%	
집과 어린이집의 거리	52	32.9	38	33.0	14	32.6	3.029
보육환경 및 시설의 질적인 우수성	64	40.5	44	38.3	20	46.5	
어린이집의 설립형태	12	7.6	11	9.6	1	2.3	
보육시간	8	5.1	6	5.2	2	4.7	
보육비용	8	5.1	6	5.2	2	4.7	
보육내용 및 프로그램	5	3.2	4	3.5	1	2.3	
교사의 자질	6	3.8	4	3.5	2	4.7	
간식 및 급식	3	1.9	2	1.7	1	2.3	

한편, 주변에 어린이집이 충분한지, 자녀를 보낼만한 시설이 충분한지, 주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높은지에 대한 조사대상의 의견을 보면 〈표 5〉와 같다. 우선 주변에 어린이집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전체적으로 평균 2.88점( $SD=1.11$ )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이용 유무 및 유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537, p<.10$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평균 2.74점( $SD=.97$ ),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평균 2.96점( $SD=1.10$ ), 어린이집 미이용자의 경우 평균 3.13점( $SD=1.39$ )으로 나타났으나, Scheffé 사후검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전체 대상 평균 2.78점( $SD=1.05$ )이었으며, 어린이집 이용 유무 및 유형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4.386, p<.05$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평균 2.73점( $SD=.99$ ),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평균 3.13점( $SD=.99$ ), 어린이집 미이용자의 경우 평균 2.57점( $SD=1.67$ )으로 나타났으며,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자에 비해 어린이집 미이용자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변 어린이집의 직질 수준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전체 대상 평균 3.41점( $SD=.77$ )이었으며, 어린이집 이용 유무 및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754, p<.10$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평균 3.45점( $SD=.75$ ),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자 평균 3.54점( $SD=.73$ ), 어린이집 미이용자 평균 3.21점( $SD=.84$ )으로 나타났으며,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자보다 어린이집 미이용자의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어린이집 이용유무 및 유형에 따른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구분	전체 (N=238)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N=133)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자(N=52)		어린이집 미이용자 (N=53)		F
	M	SD	M	SD	M	SD	M	SD	
주변에 어린이집이 충분한가	2.88	1.11	2.74	.97	2.96	1.10	3.13	1.39	2.537 <sup>+</sup>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충분한가	2.78	1.05	2.73 <sup>ab</sup>	.99	3.13 <sup>b</sup>	.99	2.57 <sup>a</sup>	1.67	4.386 <sup>*</sup>
주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높은가	3.41	.77	3.45 <sup>ab</sup>	.75	3.54 <sup>a</sup>	.73	3.21 <sup>b</sup>	.84	2.754 <sup>+</sup>

a, b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있음  
\* $p < .05$ , + $p < .10$

어린이집 이용 유무 및 시설 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선택 시 결정 요인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의 구조적 요인(주거지와 어린이집의 거리, 어린이집의 유형, 보육시간, 보육비용 등)에 대한 중요성은 5점 만점에 평균 4.21점( $SD=.50$ )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의 질적 요인(보육환경 및 시설의 질적 우수성, 보육프로그램, 시설장과 교사의 자질 등)에 대한 중요성은 평균 4.31점( $SD=.42$ )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이용 유무 및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조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평균 4.22점( $SD=.50$ ),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자 평균 4.11점( $SD=.50$ ), 어린이집 미이용자 평균 4.28점( $SD=.46$ )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질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평균 4.30점( $SD=.47$ ),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자 평균 4.37점( $SD=.35$ ), 어린이집 미이용자 평균 4.28점( $SD=.36$ )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구조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편,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자는 질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6> 어린이집 이용유무 및 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선택 시 결정요인의 차이

구분	전체 (N=238)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N=133)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자(N=52)		어린이집 미이용자 (N=53)		F
	M	SD	M	SD	M	SD	M	SD	
구조적 요인	4.21	.50	4.22	.50	4.11	.50	4.28	.46	1.600
질적 요인	4.31	.42	4.30	.47	4.37	.35	4.28	.36	.640

어린이집 이용 유무 및 시설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신념의 차이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조사대상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양육신념은 인성/지적성취 강조 요인의 경우 지적성취

보다 인성을 강조하는 신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M=2.64$ ,  $SD=.85$ ). 인적/지적성취 강조 신념의 경향은 어린이집 이용유무 및 유형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3.870$ ,  $p<.05$ ), Scheffé 사후검증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M=2.55$ ,  $SD=.84$ )에 비해 어린이집 미이용자( $M=2.92$ ,  $SD=.88$ )의 경우 지적성취를 강조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숙주의/환경주의 신념에서는 중간에 가까운 점수를 나타내었다( $M=3.96$ ,  $SD=.94$ ). 어린이집 이용 유무 및 시설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6.202$ ,  $p<.01$ ), Scheffé 사후검증 결과성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M=4.02$ ,  $SD=.82$ )와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자( $M=4.19$ ,  $SD=.89$ )에 비해 어린이집 미이용자( $M=3.59$ ,  $SD=1.14$ )의 경우 환경주의보다는 성숙주의를 강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어린이집 이용유무 및 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신념의 차이

구분	전체 ( $N=238$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자( $N=133$ )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자( $N=52$ )		어린이집 미이용자 ( $N=53$ )		F
	M	SD	M	SD	M	SD	M	SD	
인성/지적성취 강조	2.64	.85	2.55 <sup>a</sup>	.84	2.57 <sup>ab</sup>	.82	2.92 <sup>b</sup>	.88	3.870*
성숙주의/환경주의	3.96	.94	4.02 <sup>b</sup>	.82	4.19 <sup>b</sup>	.89	3.59 <sup>a</sup>	1.14	6.202**

a, b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있음

\*\* $p<.01$ , \* $p<.05$

## 2. 영아와 어머니 및 어린이집 관련 변인이 어린이집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영아의 월령,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신념, 어린이집 대기신청 수와 대기기간,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 선택 시 결정 요인이 어린이집 유형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집 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하는 확률에 대하여 0값,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할 확률에 대하여 1값을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 본 모델은 어린이집 유형 선택을 예측하는 데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51.340$ ,  $p<.001$ ). 또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VIF값이 1에 가까워 다중공선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아와 어머니 및 어린이집 관련 요인이 어린이집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영아의 월령( $B=-.220$ ,  $p<.001$ )과 어머니의 취업유무( $B=-1.738$ ,  $p<.05$ ), 어머니의 양육신념 가운데 인성/지적성취 강조 신념( $B=-1.312$ ,  $p<.05$ )과 성숙주의/환경주의 신념( $B=1.001$ ,  $p<.05$ ), 어린이집 대기신청 기간( $B=.087$ ,  $p<.10$ ), 어린이집의 구조적 요인( $B=1.738$ ,  $p<.10$ ) 등이 어린이집 유형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의 월령이 1개월 올라갈 때마다  $Exp(-.220)=.802$ 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할 확률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택

할 확률보다 0.8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의 경우  $Exp(-1.738)=.176$ 으로 어머니가 취업모일 때보다 비취업모일 때,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할 확률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할 확률보다 0.17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인성/지적성취 강조 양육신념은 어머니의 지적성취를 강조하는 신념이 1점 올라갈 때마다  $Exp(-1.312)=.269$ 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할 확률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할 확률보다 0.26배 이상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성숙주의/환경주의 신념에 대해서는  $Exp(1.001)=2.720$ 으로, 환경주의 쪽에 가까운 신념이 1점 증가할수록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할 확률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할 확률보다 2.7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대기신청 기간의 경우  $Exp(.087)=1.091$ 로 대기신청 기간이 1개월 증가할 때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할 확률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할 확률보다 1.09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의 구조적 요인은 1점 증가할 때마다  $Exp(1.738)=5.685$ 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할 확률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할 확률보다 5.68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영아와 어머니 및 어린이집 관련 요인이 어린이집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

(N=185)

	<i>B</i>	<i>S.E</i>	<i>Wald</i>	<i>Exp(B)</i>	<i>VIF</i>
영아의 월령	-.220***	.062	12.596	.802	1.227
어머니의 취업유무	-1.738*	.837	4.314	.176	1.127
어머니의 양육신념					
인성/지적성취 강조	-1.312*	.518	6.426	.269	1.100
성숙주의/환경주의	1.001*	.434	5.308	2.720	1.097
어린이집 대기신청					
대기신청 시설 수	-.477	.316	2.272	.621	1.189
대기신청 기간	.087 <sup>+</sup>	.048	3.286	1.091	1.131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주변에 어린이집이 충분한가	.200	.557	.129	1.222	2.452
자녀가 다닐만한 어린이집이 충분한가	-.307	.565	.296	.736	2.706
주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높은가	.828	.545	2.311	2.289	1.427
어린이집 선택 시 결정 요인					
어린이집의 구조적 요인	1.738 <sup>+</sup>	.964	3.248	5.685	1.428
어린이집의 질적 요인	.431	.899	.230	1.539	1.347
	$\chi^2$		51.340***		
	<i>df</i>		11		

\*\*\* $p<.001$ , \* $p<.05$ , <sup>+</sup> $p<.10$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 이용유무와 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대기현황과 어머니의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 양육신념 및 어린이집 선택 시 결정요인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이 어린이집 유형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대기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어머니의 과거 대기신청현황과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어머니의 현재 대기신청현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보육환경과 시설이 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어린이집 이용 어머니에 비해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게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 미이용 부모가 보육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김갑순 등(2012)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은 특히 영아기 자녀의 경우 직접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이 더 확고할 수 있으며, 향후 이들의 어린이집 선택에 있어 과정적 차원인 프로그램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주변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에서도 이와 같이 유사한 양상의 결과를 보였다. 즉, 어린이집 미이용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에 비해 주변에 어린이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녀를 보낼만한 어린이집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머니들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유무와 유형에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녀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 어머니에 비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는 영아의 지적 성취를 더 강조하며, 환경주의보다는 성숙주의에 가까운 신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인지발달을 강조할수록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택하고,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임유경, 2008; Seo, 200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어머니의 경우 지적 성취를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자녀 교육을 위한 기관을 선택할 때 조기교육에 대한 신념등과 같은 다른 변인의 의사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둘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어머니가 국공립 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는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에 비해 민간,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일 뿐만 아니라 일과시간에 융통성이 있고, 집과 어린이집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워 어린 자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임유경, 2008). 영아기 자녀일수록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가족이 돌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조사된 바에 따르면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의 90%이상이 부모가 가장 적절한 양육자는 부모라고 생각하며, 자녀 양육의 책임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미화, 민정원, 엄지원, 윤지연, 2013). 그러나 이러한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여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유

형 중 가정과 가장 유사한 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이나 학습을 중요하게 여겨 어린이집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연구결과와도 관련이 있다(권경미, 2012; Early & Burchinal, 2001; Riley & Glass, 2002). 아울러 어린 연령을 둔 부모의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은 가장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접근성에 기인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Seo, 2003).

유사한 맥락에서, 취업모의 경우 비취업모에 비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는 보육의 유형을 결정할 때 보육의 질보다는 어린이집의 위치나 운영시간, 비용, 이용가능성 등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제로 선호하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Peyton, Jacobs, O'Brien, & Roy, 2001). 예를 들어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싶어도 대기 상태로 오래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바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Seo, 2003).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부모들이 가장 많이 대기신청하는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어린이집이었으며, 어린이집 대기신청 기간이 길어질수록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실제로 부모가 선호하는 어린이집과 실제 선택하는 어린이집이 일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가 편의에 의한 어린이집 선택보다는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보육의 질을 고려한 선택을 했을 때 보육에 대한 만족이 높다는 일부 연구결과(권경미, 2012)는 취업모가 다양한 욕구와 선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재정비함으로써 취업모 지원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안재진, 김은지, 2010).

어린이집의 구조적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머니는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접근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취업모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와 유사하게 어머니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이용가능성이 높고 근접한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결과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영아기의 특성상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호하게 되므로 각 지자체를 거점으로 하여 실질적인 접근성이 용이한 영아 보육의 기능이 강화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어린이집의 질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시설 지원중심의 획일화된 보육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 지자체 중심의 “종합육아지원센터”로 관련 정책의 기초와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관기관 내 시간제 보육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영아 보육의 대안으로 안착될 수 있는 총체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서소정, 2013).

영아보육은 여성의 취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취업모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아보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영아보육을 확대함으로써 여성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서문희 등, 2002).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모들이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은 더 이상 가정이 떠맡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머니들의 자녀양육 및 보육에 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수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어린

이집 선택 관련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특정 지역구 거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토대로 광범위한 조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육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한 시점에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선택결정 과정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에 관한 결과가 어느 정도 안정성 또는 변화를 보이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 있다.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어떠한 변인들이 우선순위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머니들의 다양한 보육 욕구를 이해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어머니들의 이러한 욕구와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상황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보육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권경미(2012). 어머니의 어린이집 선택 고려 요인과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6(3), 29-51.
- 김갑순, 김남연, 이은형(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0(3), 165-184.
- 김연희, 박응임(2006). 부모의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선택요인 및 만족도. **대한가정학회**, 44(8), 89-99.
- 김재환(2002). 영유아 보육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희경(2003).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요인과 보육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보건복지부(2013). 2013년 보육통계.
- 서문희, 임유경, 김명순, 윤선영, 이옥, 정미라, 최영신, 황혜정(2002). 영아보육 활성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서문희, 임유경, 박애리(2002).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서소정(2013). 서울지역 육아지원센터 이용현황과 관련된 기초 연구: 어머니-영아 상호작용 및 영아발달을 중심으로. **한국보육학회지**, 13(4), 191-217.
- 손옥진(2004). 어린이집 선정기준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재진, 김은지(2010). 미취학아동 가족의 보육·교육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연구**, 79(2), 5-36.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화, 민정원, 엄지원, 윤지연(2013).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 이순형, 이옥경(2000). 한국 보육시설의 영아기 프로그램 운영 평가. **아동학회지**, 21(1), 121-140.

- 이정원, 이윤진(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의 육아실태 분석.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 임유경(2008). 영유아 보육시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지성애(2007). 보육시설 유형에 따른 영유아 발달과 시설의 질에 대한 부모의 관점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23-43.
- 최보가, 문영경(2004). 가정보육시설과 기관보육시설의 질적 특성과 영아의 사회, 정서 발달. **대한가정학회**, 42(1), 39-51.
- Early, D. M., & Burchinal, M. R. (2001). Early childhood care: Relations with family characteristics and preferred care characteristic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6, 475-497.
- Kim, J., & Fram, M. S. (2009). Profiles of choice: Parents' patterns of priority in child care decision-making.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4(1), 77-91.
- Peyton, V., Jacobs, A., O'Brien, M., & Roy, C. (2001). Reasons for choosing child care: Associations with family factors, quality, and satisfac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4(1), 191-208.
- Phillips, D., Mekos, D. Scarr, S., McCartney, K., & Abbott-Shim, M. (2000). Within and beyond the classroom door: Assessing quality in child care cent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5(4), 475-496.
- Riley, L. A., & Glass, J. L. (2002).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infant care preferences and use among employed mother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4(1), 2-15.
- Seo, S. J. (2003). Early child care choices: A theoretical model and research implication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3(6), 637-650.
- Seo, S. J. (2006). A study of infant developmental outcome with a sample of Korean working mothers of infants in poverty: Implications for early intervention program.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33(4), 253-360.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variables of interest on mothers' choices of infant care. The variables of interest in this study were categorized into the following three areas: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others and infants, 2) structural and procedural dimensions of infant care facilities, and 3) maternal beliefs on child-rear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mothers whose infants were currently cared by at infant care facilities(n=185) and those who were on the waiting list to use non-maternal infant care(n=53).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of this study preferred to select a type of center-based subsidized infant care over other types of care(family day care) due to quality of the program. Second, the mothers who were not using infant care and cared for their infants at homes reported that there were limitations in their choices of types of infant care due to accessibility and availability of public subsidized infant care facilities, and their child rearing goals were more likely to emphasize learning achievement and maturity than character education or personality. The mothers were more likely to choose a family home care over center-based public subsidized care when they were employed, had younger infants, had longer period of time on waiting lists, and emphasized structural dimensions of infant care than center-based care users. Implications for research and practices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Key Words* : *infant care, mothers' choice of infant care, maternal childrearing beliefs*

논문투고 2014. 02. 19.  
수정원고접수 2014. 04. 17.  
최종게재결정 2014. 04. 24.